지하철, 그 원칙과 융통성

강봉훈/의사신문 기자

현대를 살아가는 서민이라면 누구나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지하철일 것이다. 특히 요즘은 8호선까지 완전 개통돼서 이용하기도 편리해졌다.

나도 나름대로 지하철 매니아다.

지하철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 발견한 것 중 하나가 내가 탄 칸은 별로 흔들림이 없는데 앞칸 또는 뒤칸은 상당히 많이 흔들린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.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넘어갔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. 내가 탄 칸은 내 몸도 같이 흔들리기 때문에 흔들림을 별로 못 느끼지만 앞칸과 뒤칸은 나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많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인 것 뿐이다. 같은 선로를 달리는 차가 앞에 간다고 혹은 뒤를 따라 온다고 더 흔들릴 이유는 없는 것이다.

세상사는 이치가 다 그런 것이다. 모든 일을 나를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나와 달리 흔들려 보이는 것이다.

지하철을 탈 때 나는 항상 피곤하다. 이른 아침 출근길은 항상 졸리고 저녁의 퇴근길은 스트레스와 하루 일과에 지쳐 있다. 그래서 차에 오르게 되면 재빨리 빈자리를 두리번거리게 된다. 그럴 때면 눈에 띄는 것이 노약자 · 장애인석.

노약자 · 장애인이 젊고 건강한 사람보다 더 힘들 것이란 것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다.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자리를 비워 둘 수 있는 마음의 여유는 없는 것인가.

누구나 지치고 피곤하기에 노약자석이 비어 있다면 앉을 수도 있다. 그것은 융통성이라는 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. 그러나 노약자석에 앉을 때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어야 한다. 우선 다른 자리가 비어 있을 때는 이왕이면 그쪽을 먼저 이용하자. 일곱 사람이 앉는 자리는 아무래도 더 불편하기에 날름 노약자석에 앉는 것은 인지상정. 이해는 되지만 설령 노약자가 오면 양보해야지 하고 마음을 먹는다고 생각해도 양보 받는 입장에서는 마음이 편치는 않을 것이다.

둘째, 정 피곤한데 앉을 데가 없다면 앉더라도 자거나 신문 혹은 책 속에 머리를 묻고 있지 말자.

셋째, 양보를 해서 일어설 때에는 앉는 사람도 마음이 편하게 앉을 수 있도록 기쁜 마음으로 일어서자.

이 정도의 마음은 가지고 있어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.

이외에도 지하철에서 지켜야 할 것은 많다. 옆자리가 비었다고 무겁지도 않은 가방 내려놓고 그냥 자버리기 없기. 아이들이 장난이 심한데도 보고만 있기 없기. 편히 앉는다고 자리 중간에 앉아서 여섯 명밖에 못 앉는 일이 생기게 하기 없기. 연인이랑 같이 간다고 에스컬레이터에 나란히 서서 가기 없기. 귀에 이어폰 꽂고 큰 소리로 음악 듣기 없기. 핸드폰 소리 안 들린다고 소리 지르기 없기. 등등.

물론 텅빈 옆자리에 가방을 내려놓을 수는 있지만 누가 오면 항상 비워 줄 수 있어야 한다. 친구랑 에스컬레이터를 나란히 탈 수도 있지만 눈치껏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비켜 줘야 한다.

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 이러한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 지하철이다. 그렇기 때문에 내 맘대로가 아니라 누구든지 이해 가능한 선에서 행동을 해야 한다.

세상사는 이치도 똑 같은 것이다. PPFK